



혁신으로 앞서가는 남원용성중학교

10월 보건소식지

< 가정통신문 >

주 소 : 남원시 춘향로 73
(<http://www.nwys.ms.kr>)
교무실 : (063) 633-4549
팩 스 : (063) 631-4734

청딱지개미반날개(화상벌레) 주의

❖ 청딱지개미반날개(화상벌레)가 무엇인가요?

- '화상벌레'라고 알려진 '청딱지개미 반날개'의 형태는 매우 가늘고 작으며 (폭 1mm, 길이 7-8mm), 전체적으로 검은색과 붉은색을 띠고, 복부 중간의 딱지 날개는 파란색 또는 초록색의 금속성 광택을 나타냅니다. '페데린'이라는 독성물질을 분비해서 피부에 닿기만 해도 화상과 비슷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킨다고 하여 '화상벌레'라고도 합니다.



❖ 화상벌레는 갑자기 나타난 해외유입 신종 벌레인가요?

- 화상벌레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생하는 토착종으로 낮에는 논과 같은 습지에서 해충을 잡아먹는 익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밤에는 빛에 이끌려 실내로 유입되거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.

❖ 화상벌레는 주로 언제 출몰하나요?

- 화상벌레는 야행성 습성을 가지고 있어 밤에 불빛에 의해 가로등 주변이나 실내로 유입되기도 합니다. 봄부터 가을까지 발견되지만 여름 우기나 습한 날씨에 활동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❖ 화상벌레 접촉으로 인한 피부질환 유발 시 증상은?

- 가려움을 동반한 작열감과 따끔거림, 발진, 수포가 생기며, 눈에 들어갔을 경우 급성결막염, 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
❖ 화상벌레가 피부에 닿았을 때 대처요령은?

- 비누와 물로 접촉부위를 씻습니다.
- 코르티솔계 연고나 일반 피부염 연고 등으로 치료 가능하며, 냉찜질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
-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·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눈을 절대로 비비지 않습니다.
- 부위가 넓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, 의료진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.

❖ 화상벌레 이렇게 예방하세요!



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도구 등을 사용해서 날려 보내야 합니다.



화상벌레는 야행성으로, 밤에는 커튼 등의 가림막을 이용합니다.



방충망을 설치하여 실내 유입을 차단합니다.



소매와 다리를 가릴 수 있는 긴 옷을 착용합니다.



모기 살충제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고, 사체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
추석 연휴 감염병 예방

1. 코로나19 감염증

● 연휴 기간 가정 내 위생 및 방역수칙 이행 철저

● 추석 연휴 기간 이동자제

(부득이한 이동시 방역대책 확인·준수)

▶ 불필요한 외출 자제

▶ 이동 시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, 대중교통 이용 시 음식섭취 자제, 휴게소 이용 시간 최소화



- (대중교통) 반드시 마스크 착용, 음식섭취 자제 등

- (고속도로 휴게시설)

휴게소 혼잡 알림 시스템

적극 활용하여 분산 이용

▶ 온라인 추모·성묘 서비스

적극 활용



2.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

-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, 설사, 복통 등의 위장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
- 명절기간 동안 상온에 장시간 노출되어 **부패될 수 있는 음식** 등을 함께 먹을 경우 집단 발생이 우려
- 예방 수칙



흐르는 물에 30초 이상
비누로 손씻기



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



물은 끓여 마시기



채소·과일은 깨끗한 물에
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



설사 증상이 있는
경우에 조리하지 않기



위생적으로 조리하기
* 칼, 도마 조리 후 소독
생선·고기·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

3. 비브리오패혈증

-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급성 패혈증
- 간에 질환이 있거나 알콜중독,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특히 주의할 것
- 예방수칙



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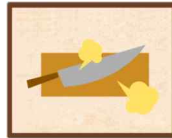
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
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기



5°C 이하로
저온 보관,
85°C 이상
가열 처리하기



조리시 흐르는
수돗물에
깨끗이 씻기
(해수 사용 금지)



어패류를 다룰
때 장갑을 착용,
요리한 도마, 칼
등은 반드시
소독 후 사용하기

4. A형 간염

- A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간염 질환
-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·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전파됨

- 초기에 발열, 두통, 피로 등 전신증상이 생긴 후 **임갈색 소변, 황달** 등의 증상 발현하여 수주~수개월 후 회복됨
- 예방수칙

① 조개젓 섭취 주의

- A형간염 안전성 확인시까지 조개젓 섭취 중단 권고
- 조개류는 익혀먹기
 - 90°C에서 4분 이상 열을 가하거나, 끓는 물에서 조개의 껍질이 열린 후 5분 이상 끓여서 먹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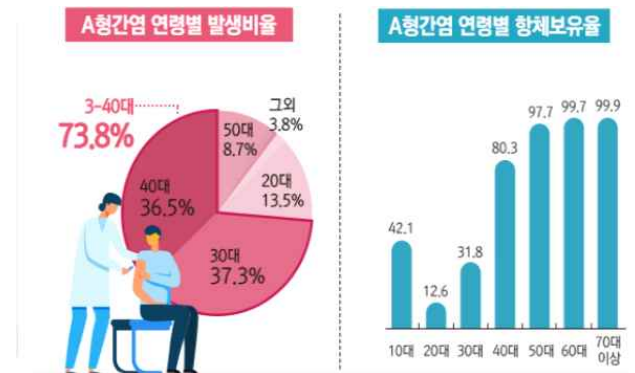
② 요리하기 전, 식사 전, 화장실 다녀온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

③ 안전한 물 마시기

- 끓인 물 또는 병에 든 생수 섭취

④ 채소·과일은 깨끗이 씻고, 껍질 벗겨 먹기

⑤ A형간염 예방접종



5. 진드기 매개 감염병

- **쯔쯔가무시증,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** 등 진드기를 통해 옮기는 감염병
- 성묘나 농작업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풀숲에 피부가 노출되지 않게 특히 주의할 것
- 예방수칙



성묘나 농작업 시 피부
노출을 최소화하기
위해 긴 옷 입기



성묘를 드릴 때에는
돗자리 등 이용



벌초 할 때에는
풀 위에 옷
벗어놓지 않기



진드기 기피제
사용하기



야외활동 후
귀가하는
즉시 목욕

★ 추석 연휴 기간 중 감염병이 의심되거나
질병정보가 궁금할 때에는 365일 24시간 언제나
질병관리청 콜센터 ☎1339로 문의하세요!